

주일가정예배 순서

[종려주일]

2021년 3월 28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9-10)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 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서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41장 다같이

1.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 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2.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3. 호산나 그 옛날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빌립보서 2:5-11 인도자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설 교 “**긍정을 위한 부정**”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54장** **다같이**

1.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후렴〉 저 겹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2.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3.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4.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3.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좌석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중앙교회 예배당 330명) 현장 예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겹세마네 특별새벽기도회가 28일(월)-4월4일(토)까지 교회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4/3일(금)에 옥합헌금 봉헌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옥합헌금은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당한 미얀마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고, 성찬 참여를 위해 각 가정에서 성찬 포도즙과 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을 위한 부정”

(마태복음 21:5-11)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정을 위한 부정'이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정(否定) 즉 회개, 십자가, 제자도를 놓치면 안 된다. '나의 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이어야 한다.

신앙의 여정에는 '공정을 위한 부정'을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위 광야학교다. 모세는 처음에 somebody라고 생각했다가, 도망자 신세일 때는 nobody,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everybody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광야, 다윗의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교부들의 사막, 이 모두는 자기 부인을 배우는 학교다. 공정을 위한 긍정,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 공정을 위한 부정이다.

그 부정이 대표는 역시 십자가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셨다. 사실 성육신 사건도 자기 부인이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생애도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자기 부인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공정을 위한 부정이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정과 공정을 대조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예수님의 부정이 있는 뒤에야 긍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5~8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부정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정을 입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9~11절).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부정은 '비움'(케노시스)으로 규정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은 상향성 중심의 세상에서 하향의 길을 걸으셨다. 권력의 길이 아니라 탈 권력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추앙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조롱과 거절의 좁은 길을 가셨다. '참으로 크고자 하거든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잃을수록 많이 얻는다.

'공정과 부정'은 '회개와 믿음' '회개와 천국'에도 적용된다. 예수님의 사역 첫 일성(一聲)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서, '회개'는 부정에 해당하고 '천국'은 긍정에 해당한다. 회개가 없다면 천국도 없다. 회개와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처럼 불가분리 관계다.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므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

팔복도 공정을 위한 부정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

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 나를 부인하면 결국 복을 받게 된다. 물론 부정만 해서도 안 된다. 비우기만 해서도 안 된다. 회개하고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죄에 대한 회개(부정)도 주님을 모시는 믿음(긍정)을 전제로 할 때만 가치가 있다.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움에 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면 유한한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다. 제자도는 자기 부인의 길이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긍정을 덧입고자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